

예술, 소프트 파워, 한류를 통한 한불 문화교류의 발전

-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안 -

장인주*

I. 들어가며

II. 한불 관계의 변화와 한류

III. 한불수교 기념사업의 성과와 전략

I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I. 들어가며

현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영향력은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문화, 가치, 외교적 매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이끄는 능력, 즉 소프트파워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 역사적 궤적 속에서 문화 교류는 상호 간의 인식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해왔다.

초기 종교적 접촉과 충돌, 공식 수교와 단절, 그리고 현대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화는 때로는 갈등의 대상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폭발적인 확산을 경험했으며, 이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사회에 강력하게 각인되었다.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는 프랑스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는 한국 이미지 제고 및 양국 국민 간의 비공식적인 유대 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같은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성취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깊이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한국 문화의 다층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증대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수교 기념 시기를 대규모 문화 외교의 기회로 삼아왔다. 100주년과 120주년을 거치며 점차 확대된 기념 문화행사는, 13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전례 없는 규모와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화가 양국 관계 심화에 있어 중요

* 무용평론가, cestinjoo@hanmail.net

한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였다. 이러한 공식적 문화 교류는 프랑스 내 한류로 촉발된 대중적 관심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정동하(2017)와 Orange(2017)가 한불 간 초기 문화 접촉의 과정을 조명하였으며, 조홍식(2016)은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전략적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홍유선·임대근(2018)은 ‘한류’라는 개념적 틀에 주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Bidet(2013)와 Joinau(2018)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파워의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불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관하고, 프랑스 내 한류가 확산되어 온 양상 및 문학 등 순수 예술 분야의 성취가 한국 소프트파워 증진에 미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수교 기념 시기(100주년, 120주년, 130주년)에 이루어진 문화예술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며, 이러한 공식적인 문화외교 노력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강화해왔는지를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성과와 함께 한류의 장기적 발전 및 한국 소프트파워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다가오는 한불수교 140주년(2026년)을 포함한 향후 양국 문화 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불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불 관계의 변화와 한류

1. 한불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외교의 진화

한불 양국 간 교류는 19세기 초 프랑스가 로마 가톨릭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1836년, 프랑스 선교사 피에르 모방(Pierre Maubant)이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선 내에서 천주교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유교를 국시로 삼던 당시 조선 사회는 서양 종교에 대해 강한 배타성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천주교 박해가 반복되었다(Orange, 2017). 1866년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공(병인양요)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의궤 등 다수의 문화재를 약탈하였다(조홍식, 2016). 그러나 1851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한 프랑스 선원의 난파 사건에 대응하여 프랑스 외교관이 조선을 방문한 사례는, 양국 간 관계가 반드시 갈등 일변도였던 것만을 아님을 시사한다.

이후 1886년 6월 4일,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해당 조약은 상호 간의 평화와 우호 증진, 프랑스인의 영사 재판권 보장, 통상 규정 및 최혜국 대우 등을 명시하였다. 프랑스는 1887년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를 초대 공사로 파견하였으며(장동하, 2017), 그의 통역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은 이후 ‘한국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프랑스 내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Rivé-Lasan, 2017). 초기의 문화 교류는 외교관 및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 등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오랫동안 양국 간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인해 한불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동안 프랑스 내에서는 한국

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상해 임시정부 대표단이 파리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프랑스는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1949년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재개설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1950-1953) 당시 프랑스가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함으로써 양국은 더욱 긴밀한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고, 이는 이후 문화 및 경제 분야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1980년 개원한 주불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 소개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으며, 문화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병인양요 당시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는 1993년과 2011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반환되었고, 이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 논의의 진전 사례이자 문화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정상천, 201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파리에서 열린 BTS의 ‘한불 우정 콘서트’)는 대중문화가 양국 문화 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한불 관계는 종교적 접촉과 갈등, 공식 수교, 단절과 재개, 전후 협력, 그리고 최근의 문화 교류 강화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도 변동적인 역사를 거쳐 발전해 왔다. 프랑스에서 아시아 중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의 확산이 늦어진 배경에는 대중적 노출 빈도, 문화적 거리감 등이 작용했으나, 최근 수십 년간 한류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가 급속히 부상함에 따라 양국은 문화 외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심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프랑스 내 한류의 확산과 함의

용어 ‘한류(韓流)’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조어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홍유선과 임대근(2018)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12월, 대만의 음반사 군스창피엔(滾石唱片)의 야오펑첸(姚鳳群)이 중국어 단어 ‘한류(寒流, 차가운 해류)’의 발음을 활용하여, ‘한국(韓國)’과 ‘조류(潮流)’를 결합한 조어로 ‘한류(韓流)’를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한류(寒流)’는 ‘차갑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따라 긍정적 의미를 지닌 ‘한류(韓流)’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용어는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한류산업 진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한류가 대중문화에 국한한 용어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5).

프랑스 사회에서 한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이는 한류의 등장이 있기 이전이었다. 특히 1993년 파리龐피두 센터(Centre Pompidou)에서 개최된 3개월간의 ‘한

1) 박수윤(2018, 10, 19), “방탄소년단 프랑스 도착…유럽 문화수도 파리 환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9042800005>, 2025, 04, 28>.

국 영화 파노라마’는 프랑스 내 한국 문화 소개의 기점으로 평가된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이 행사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1993)를 포함하여 총 85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프랑스 공공기관이 주도한 최초의 대규모 한국문화 홍보 사업으로 기록된다. 본 행사를 계기로 프랑스 영화계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하였고, 이후 한국 영화에 대한 애호층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출판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이는 프랑스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불 한국문화원은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으나, 이 시기의 한국문화는 프랑스 대중에게 주로 전통 중심의 이국적 동양문화로 인식되었다. 당시 한국문화의 확산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었으며, 대중적 확산보다는 엘리트 문화 혹은 문화적 호기심에 기반한 일종의 ‘문화적 탐색’ 수준에 머물렀다.

프랑스에서의 ‘한류’는 201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내에서는 이를 ‘Hallyu’라 표기하며, ‘한국의 물결(vague coréenne)’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산 초기에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가 주로 온라인을 매개로 유통되었으며, 소수의 열성적인 수용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팬덤 문화를 형성하였다. 2010년에는 프랑스어권 최초의 한국 드라마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드라마파시옹(Dramapassion)’이 출범하였고, 이는 한류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커피프린스 1호점」(2007), 「베토벤 바이러스」(2008), 「꽃보다 남자」(2009) 등 주요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프랑스 내 한국 드라마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1년 SM타운 콘서트, 2012년 슈퍼주니어 및 싸이의 공연은 프랑스 대중문화 내 한류의 가시성을 제고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한류가 대중문화의 주류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부상 이후라 할 수 있다(박진우, 2022). 2018년과 2019년 파리에서 개최된 BTS의 공연은 수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후 케이팝 팬클럽의 증가, 관련 전문 매장과 한식당의 확산은 한류가 프랑스 청소년 및 청년층의 일상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케이팝의 인기는 한국 드라마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한국을 동양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부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대에 접어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촉진하였고,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증하였다. 특히 2021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은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프랑스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화의 전방위적 확산 시도가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브롱냐르 궁(Palais Brongniart)에서 ‘2024 프랑스 K-박람회’(10월 26-30일)를 개최하여 미용, 라이프스타일, 패션, 애니메이션·캐릭터, 케이팝, 출판, 드라마·웹툰, 게임,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 설립된 한불문화교류센터는 양국 문화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청년 예술인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프랑스 내 한류는 초기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소비 단계에서 벗어나, 주류 문화의 일환으로 통합되는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파리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케이팝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리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케이팝 관련 소품 전문점과 한국식 길거리 음식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의 확대, 케이팝 전문 잡지의 창간, 한국 영화

제 관객 수의 지속적 증가 등은 한류가 프랑스 대중문화 속에 점진적이고 다층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한류 확산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수용자 층이 주로 10~20대 청소년 및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대 간 문화적 간극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 한류가 여전히 하위 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스며든 한류문화의 다양한 색채를 더욱 드러내는 전략적 모색이 요구된다”(김현태, 김건, 2023, p. 214)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 측면에서의 제약도 여전하다. 한국 드라마는 포맷 구조 및 문화적 문법의 이질성으로 인해 프랑스 지상파 방송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공식 유통 채널의 한계로 인해 불법 스트리밍 등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소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활발하나, 한국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으로 인해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류의 상업적 이미지에 가려 한국 예술 전반의 성과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교 기념일 등 주요 계기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문화교류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한국문화의 다층적 가치와 예술적 깊이를 전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기능한다. 예술 분야의 상호 교류 활성화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프랑스 내 한류 수용 및 확산 시기별 특징

시기	주요 특징	콘텐츠	수용 방식	문화적 위상
1단계 (1990년대 초반 ~ 2000년대 중반)	한류 이전: 한국 문화의 집중 소개 · 1993년 파리 퐁피두 센터 한국영화 회고전 · 전통문화 및 출판물에 대한 제한적 관심	전통문화, 예술영화, 문학	공공기관 주도 행사 중심 엘리트 문화 위주	이국적 동양문화 한정적 수용
2단계 (2010년대 초반)	한류의 등장 및 팬덤 형성기 · 2010년 드라마파시옹 플랫폼 개설 · 2011년 SM타운 콘서트 · 2012년 싸이 공연	케이팝, 한국 드라마	온라인 자발적 공유 팬덤 기반 소비	하위 문화적 성격 청소년 중심
3단계 (2010년대 후반)	대중문화로의 확산 · BTS의 파리 공연(2018, 2019) · 케이팝 매장 및 한식당 확산	케이팝, 드라마, 한식	공식 유통 채널 확장 SNS 및 유튜브 중심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성장
4단계 (2020년대 이후)	주류 문화로 정착 ·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성공 · 2024년 K-박람회 개최 · 한불문화교류센터 설립	종합문화 콘텐츠 (드라마, 웹툰, 게임, K-뷰티 등)	디지털 플랫폼 + 오프라인 행사 병행	프랑스 주류 문화로 통합 한국 이미지 제고

3. 문화 외교의 이론적 틀: 소프트 파워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제시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개념은 강제력이나 보상을 통한 영향력 행사와 달리, 매력을 기반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이는 문화,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을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원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는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외교를 소프트 파워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초기 문화정책은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를 이념적 토대로 삼아 오페라, 연극, 무용 등 고급 예술을 대중에게 확산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장인주, 2016). 프랑스의 문화 외교 전략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는데 초기에는 ‘명성(名聲) 외교(diplomatie de prestige)’를 통해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후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와 ‘문화 다양성(diversité culturelle)’ 개념을 창출함으로써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전략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2008년 이후에는 ‘영향력 외교(diplomatie d’influ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외교의 방향을 단순한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과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네트워크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교류가 단순한 소개 수준을 넘어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한 영향력 증진을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의 문화정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문화행정이 곧 문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지영, 하영미, 김은혜, 2019, p. 40). 그러나 2005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문화다양성 협약’ 이후, 문화예술 생태계가 다변화하며 급속히 성장하였고,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수십 년 간 이른바 ‘한류’로 지칭되는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통해 소프트 파워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다²⁾. 한류가 야기하는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위상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외교가 더 이상 부차적인 외교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내 한류의 확산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특정 국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평가된다(Joinau, 2018).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프랑스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 한국 제품 소비 확대, 한국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한다.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한국의 정치적 가치나 외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즉, 매력적인 문화는 강제나 설득 없이도 타국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프랑스 내 한류의 확산은 그 한계 또한 동시에 노정한다. 한류가 단순히 소비 지향적 대중문화에 머무를 경우,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향된 인식만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넘어서, 그 이면에 담긴 가치와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수반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외교는 한류의 인기를 기반으로

2) Bidet, E.(2013). “La construction du ‘soft power’ : l'exemple de la Corée du Sud”. *Ceriscope*. <<http://ceriscope.sciences-po.fr/puissance/content/part2/la-construction-du-soft-power-l-exemple-de-la-coree-du-sud>, 2025. 02. 01>.

하되, 전통 예술, 문학, 현대 미술, 인문학 등 한국 문화의 다층적인 면모를 함께 소개하고, 프랑스 사회와의 깊이 있는 문화적 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한불 관계는 19세기의 충돌과 긴장을 지나, 20세기의 단절과 수교를 거쳐, 21세기 들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 부상을 계기로 문화 교류를 중심축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축적된 프랑스의 문화 외교 경험과 최근 부상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양국이 문화외교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프랑스 내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프랑스 대중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제시한다. 세대 및 사회 계층 간 수용 격차 해소, 다양한 유통 채널의 확보, 피상적 소비를 넘어서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은 지속 가능한 문화외교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또한, 한류가 하위 문화적 성격을 넘어 주류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종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김현태, 김건,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은 전략적인 문화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 문화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학자·문화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교류, 공동 제작,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지향하는 ‘영향력 외교’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한편 문화재 반환과 같은 과거의 문화적 쟁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정상천, 2011).

결론적으로, 문화외교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상호 이해 증진과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상이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라는 보편적 매개를 통해 관계를 한층 심화시킬 잠재력을 지니며, 향후에도 전략적 문화외교를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한불수교 기념사업의 성과와 전략

1. 한불수교 기념 시기별 문화예술 교류와 성과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6월 4일 체결된 ‘한불 우호통상조약’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양국은 수교 기념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켜왔다. 특히 10년 단위로 진행된 대규모 문화교류 사업은 단순한 기념행사의 차원을 넘어, 양국의 예술적 성취와 협력의 장으로 진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기념행사가 기획되지 않은 110주년을 제외하고, 100주년, 120주년, 130주년 등 주요 수교 기념 시기의 문화예술 교류와 그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한불수교 100주년(1986년): 학술 및 문화 교류의 기반 조성

1986년 한불수교 100주년을 양국 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문화교류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에는 학술 교류와 공식 기념행사가 중심이 되었으며, 국가편찬위원회 산하 한국사연구협의회는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불수교 100년사』(1986)

를 간행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역사적 관계의 정립과 학문적 교류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을 제작해 상징적 기념물을 남겼으며 주요 행사로는 풍피두 센터에서의 ‘한국 영화 파노라마’, 낭트 상공회의소에서의 ‘한국 영화 자료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월레 교회사 연구발표회’ 등이 있었다. 이 시기 서울 목동에 조성된 ‘파리공원’은 도시 공간 내 문화적 기념의 한 형태로 주목받았다.

비록 대규모 예술행사는 아니었으나, 한국 우표 전시회, 한·불 민예품 전시회, 프랑스 현대 공예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다. 파리에서 열린 한국 매듭전, 한국에서의 파스텔화 전시, 무용 공연 등은 양국 문화교류의 물꼬를 튼 사례로 볼 수 있다³⁾. 이처럼 100주년 기념행사는 이후 본격적인 문화교류 확대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나. 한불수교 120주년(2006년): 교류의 확대와 다변화

2006년 한불수교 120주년을 양국 간 문화교류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한국을 가슴 속으로’(Corée au cœur)와 ‘아자! 프랑스’(Allez! France)라는 상호 슬로건 아래,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이해를 심화하고, 한국의 문화유산 및 현대 창작물의 다양성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술분야에서 펼쳐진 주요 행사 및 작품으로는 오페라 코미크 국립극장(Opéra Comique)과 프랑스 국립연극센터(Centre National du Théâtre)의 공동 제작 작품 「귀족놀이, *Les Jeux de la Noblesse*」(2006), 극단 호모루덴스와 거리예술극단 일로토피(Ilotope)의 협업작품, 모리스 쿠랑 사진전 ‘서울의 추억 1886-1905’,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에서의 ‘김기영 회고전’, ‘황병기 가야금 독주회’, 김매자와 카롤린 칼송(Carolyn Carlson)의 공동 안무 공연 등이 있었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이외에도 파리·서울 공동 ‘철야축제’(Nuit Blanche), 몽펠리에·시댄스 무용 축제, 미모스·춘천 마임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현대 문화 프로그램으로 ‘프렌치 테크노 나이트’(French Techno Night)가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안무가 무라드 메르주키(Mourad Merzouki)가 이끄는 카피그 무용단(Compagnie Käfig)의 내한공연은 프랑스 현대무용, 특히 힙합 장르의 새로운 흐름을 국내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20주년 기념행사는 전통예술부터 현대 대중문화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 한불수교 130주년 (2015-2016년): 전례 없는 규모의 문화예술 교류⁴⁾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된 ‘한불 상호 교류의 해’(Année France-Corée 2015-2016)는 양국 정상의 합의 하에 기획된, 최장 기간(1년 반), 최다 분야, 최대 규모의 양자 문화교류 행사였다. ‘프랑스 내 한국의 해’(Année de la Corée en France, 2015년 9월 ~ 2016년 8월)와 ‘한국 내 프랑스의

3) 한국정책방송원(1986. 06. 06). “대한뉴스 제1596호: 한불수교 100주년”. e영상 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989&mediadt1=24091&mediagbn=DH>, 2025. 04. 20>.

4)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2017)와 외교부에서 발간한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결과보고서』(2017)를 참고해 요약했음.

해'(Année de la France en Corée, 2016년 1월 ~ 12월)로 구분하여 총 492개에 달하는 행사가 전개되었다.

130주년 기념행사의 서막은 2015년 9월 18일, 파리 샤키오 국립극장(Théâtre National de Chaillot)에서 열린 「종묘제례악」(2015) 공연과 에펠탑 점등식으로 시작되었다. 「종묘제례악」은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전편이 해외에서 온전하게 구성·공연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해당 공연에는 115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고, 자막 해설 및 프랑스 공영방송 아르떼(ARTE)의 영상기록을 통해 그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이 시기 양국은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패션, 첨단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교류를 실현하였다. 예술분야 주요 성과로는 김수자 작가의 퐁피두 메츠 센터(Centre Pompidou-Metz) 설치작품 전시, 배병우 작가의 사진전, 작곡가 진은숙의 현정 공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국 국립연극센터와 프랑스 국립극단의 협업작품 「빛의 제국, *L'Empire des Lumières*」(2016), 국립국악원과 시테 드 라 뮈지크(Cité de la Musique)의 악기 기증식 및 공연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메이드 인 서울, *Made in Seoul*」(2016) 전시는 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응용을 주제로 프랑스와 한국 양국에서 동시 개최되었으며, 참여 작가들에게는 파리 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 기회가 제공되어 미래 지향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무용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동안 프랑스 무용이 주로 한국에 소개되었던 양상에서 벗어나, 한국의 무용, 특히 현대무용이 프랑스 주류 무용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예술 교류 및 공동 창작의 기반을 마련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파리 샤키오 국립극장에서 한국의 무용을 집중 조명하는 ‘포커스 코레(Focus Corée)’ 프로그램이 개최된 것이다. 샤키오 국립극장이 특정 국가를 주제로 처음 기획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현대무용단을 비롯한 안성수, 이인수 등 안무가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한국 현대무용의 독창성과 예술적 역량을 프랑스 주류 무용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획은 단발성 공연을 넘어 한국 무용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은미컴퍼니는 파리 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과 리옹 무용의 집(Maison de la Danse de Lyon)을 비롯해 ‘파리 가을축제(Festival d'Automne à Paris)’와 ‘파리 여름축제(Festival Paris Quartier d'Été)’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초대받아 프랑스 내 20개 극장에서 50여회 공연을 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략적 진출과 더불어, 양국 예술가 간의 실질적인 공동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진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국립무용단이 프랑스 안무가 조세 몽탈보(José Montalvo)와 협업하여 샤키오 국립극장에서 초연한 「시간의 나이, *Sigané Naï*」(2016)는 한국 전통춤과 프랑스의 현대적 미학을 조화롭게 융합함으로써, 전통예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 무용이 세계무대의 중심지에서 예술적 위상을 확립하고,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공동 창작이라는 심화된 교류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국제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국립무용단은 「시간의 나이」 외에도 칸 댄스 페스티벌에서 「회오리, *Vortex*」(2014), 리옹 레 뉘 드 푸르비에르(Les Nuits de Fourvière) 축제에서 「묵향, *Scent of Ink*」(2013)을 공연하는 등, 프랑스 주

요 무대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한국 전통무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정서운, 안병주, 2014, p. 112)는 학계의 과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양국의 축제로 진행된 130주년 기념행사가 역사적인 업적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대중적 참여의 규모였다. 프랑스 국민 약 378만 명(전체 인구의 5.7%)과 한국 국민 약 459만 명(전체 인구의 9%)이 상호 국가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의 질과 양 모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⁵⁾. 이는 한불 간 문화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한불수교 주요 기념시기별 문화예술 교류 개요 및 성과 비교

기념시기	주요 행사	분야별 세부내용	성과 및 의의
100주년 (1986년)	· 『한불수교 100년사』 간행 · 한국조폐공사 기념메달 제작 · 퐁피두센터 ‘한국영화 파노라마’	· 역사 재조명 및 학술 교류 · 영화·공예·미술 등 다양한 장르 전시 · 도시 내 기념공간 조성	· 한불관계 역사적 정립 · 문화교류의 제도적·상징적 기반 마련 · 이후 대규모 교류의 초석 구축
120주년 (2006년)	· 오페라 코미크·국립연극센터 공동제작 「귀족놀이」 · ‘서울의 추억’ 사진전 ·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 파리·서울 ‘철야축제’	· 지역축제 및 국제교류 확대 · 교류의 다층화 및 현대화 · 양국 문화의 다양성 소개	· 문화교류의 다층화 및 현대화 · 전통과 현대, 예술과 대중문화 아우름 · 젊은 세대 문화교류 활성화
130주년 (2016년)	· 파리 샤이오국립극장 「종교계례악」 공연 · 「시간의 나이」 (국립무용단·몽탈보 공동작) · 「빛의 제국」 (연극센터·국립극단 협업) · 「메이드 인 서울」 동시 개최	· 첨단예술·패션·문학·사진 등 전방위 교류 · 한불 예술가 공동 창작, 레지던시 지원 · 양국 대중 800만 명 이상 참여 · 교육·과학·산업 등 다분야 연계	· 양국 정상 주도 · 한불 문화교류 사상 최대 규모 · 대중적 참여와 예술적 협력의 질적·양적 도약 · 문화산업·창의산업 협력의 기반 강화 · 미래지향적 문화파트너십 구축

2. 2026년, 문화예술 교류의 미래 구상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은 양국 간 오랜 문화예술 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일상과 정서에 깊이 스며드는 실질적 교류의 매개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5월 20일 파리 소재 프랑스 문화부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문화부 장관이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ion, 이하 LOI)’를 체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⁶⁾. LO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문화·예술·유산 분야 관련 기관 간 구조화된 협력 구축, ② 문화·

5) 문화체육관광부(2016. 12. 12). 보도자료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 또 다른 우정의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776, 2025. 05. 02>.

6) 문화체육관광부(2025. 05. 21). 보도자료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문화협력 기틀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34, 2025. 05. 25>.

예술 활동 분야의 제작, 공연, 전시, 홍보, ③ 영화, 시청각 콘텐츠, 게임 등 문화산업군에서의 협력사업 및 교류, ④ 문화·무형·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관리, 접근성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약속하였다. 전체적으로 10년 전 한불 수교 130주년과 유사한 규모로서 큰 기대를 갖게 하나, 수교기념일(6월 4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준비가 지연되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트렌드를 넘어 예술분야가 확장 가능한 주요 기회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140주년 행사를 위해서는 대중 예술의 역동성과 순수 예술의 깊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교류를 장려하는 구체적 전략과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통합 문화행사 기획에 초점을 둔 공동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설립, 대중 예술과 순수 예술 분야 모두에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의 지원, 그리고 한불 예술 협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대 예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술가 중심의 양방향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웹툰, 케이팝, 현대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양국 청년 예술인들이 공동 창작을 통해 상호 간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산-칸(Canne) 레지던시 파트너십, 케이팝 아틀리에 등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장르 간 융합 프로젝트나 공동 창작 페스티벌을 기획함으로써, 예술적 상상력과 혁신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칸 시는 영화에 이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부산-칸 두 도시 간, 무용 장르의 집중적인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⁸⁾. 이러한 계획에 발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병행하여 조명하는 방식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각기 다른 미학적 자산을 상호 비교하고 심화 연구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심포지엄, 예술가 간 토론회,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의 기획이 요구되며, 이는 역사적 맥락을 넘어서서 미학적 보편성 기반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술이 인류 공동체의 기반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공적 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전통-현대 간, 예술-산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는 다층적 교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주와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간의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심화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예술 자산을 프랑스 현지에서 전시 및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예술 교류, 공동 창작 워크숍, 디지털 아트 전시 등의 미래지향적 교류 모델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글로벌 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류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은 국가 간 경쟁이나 일방적 홍보의 도구가 아닌, 상호 이해와 공감, 평화와 연대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이를

7) 한불수교 130주년의 경우, 2015-16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2010년 11월 양국 정상 간에 행사개최 합의, 2014년 1월 한국 측 조직위원회 구성,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차에 걸쳐 양국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8) 김은영(2025. 03. 10),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 영화 이어 무용 교류 활성화”.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31010471441656>, 2025. 05. 02>.

위해 쌍방향적이고 참여적인 교류 구조가 필수적이다(미래산업전략연구소, 2020).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시민, 예술가, 기획자,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과 협력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이 사회적 변화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교류는 단순한 기념행사의 차원을 넘어,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창의적 에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5대 방안을 신속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측은 임시적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반면, 프랑스는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⁹⁾가 주무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류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앙스티튀 프랑세와 한국의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에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3〉 한불수교 140주년 문화예술 교류 5대 방안

방안	핵심 목표	기대 효과
1. 예술가 중심 양방향 레지던시 확대	양국 청년 예술인 공동 창작 및 문화적 교류 촉진	상호 문화 이해 증진 및 창의적 역량 강화
2. 전통-현대 예술 병행 조명	양국 미학적 자산 비교 및 인류 보편적 가치 공감대 형성	미학적 깊이 확장 및 인류 공동체 의식 함양
3. 지역 기반 문화예술 교류 확대	중앙-지방, 예술-산업 간 유기적 연계 및 지역 문화 국제화	다층적 교류 구조 구축 및 지역 문화의 국제적 확산
4. 디지털 기술 융합 교류 모델 실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미래지향적 예술 교류 및 사회적 확장성 극대화	글로벌 문화 환경 대응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5. 예술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조	상호 이해, 공감, 평화 기반의 쌍방향적 교류 구조 구축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 및 미래 비전 제시

IV. 나오며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19세기 초 종교적 접촉과 갈등으로 시작하여 공식 수교, 단절과 재개, 그리고 전후 협력을 거쳐 오늘날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류’의 등장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으며, 특히 프랑스 내 한국의 문화적 매력과 영향력을 극적으로 신장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초기 한불 관계는 외규장각 의궤 약탈과 같은 갈등의 역사와 함께 일부 지식인 중심의 제한적 교류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참전 등을 거치며 우호 관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주불 한국문화원의 설립과 문화재 반환 노력은 문화 외교의 점진적 진화를 보여주었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류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를 필두로 프랑스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며

9) 프랑스는 2010년 법령을 통해 해외 문화활동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011년 기존 대사관 소속의 프랑스 문화원들과 문화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앙스티튀 프랑세(Institut français)’로 통합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1990년대 한국 영화 소개와 같은 초기 단계를 거쳐, 2010년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팬덤 형성, 그리고 BTS의 성공과 「오징어 게임」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주류 문화로의 편입 단계를 밟아왔다. 이러한 한류의 확산은 프랑스 사회 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화적 파급력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불수교 100주년, 120주년을 거쳐 1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 사업은 전례 없는 규모와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문화가 양국 관계 심화에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프랑스 내 한류는 수용자층의 편중, 유통 채널의 한계,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와 질적 심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지점들이다. 단순히 대중문화의 인기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 순수 예술,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때, 한류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선 깊이 있는 문화적 영향력, 즉 성숙한 국제적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문화 교류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예술가 중심의 양방향 레지던시 확대, 전통과 현대 예술의 균형 있는 조명, 지역 기반 교류 활성화, 디지털 기술 접목, 그리고 예술의 공공성 강화는 한국이 지닌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선 상호 존중과 창의적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불 관계의 역사는 문화가 가진 비강제적 설득력 즉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는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향후 140주년을 비롯한 지속적인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매력과 호감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영, 하영미, 김은혜(2019). 문화다양성 담론의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무용예술학 연구**, 75(3), 37-56.
- 김현태, 김건(2023). 프랑스에서 한류문화 확산 현황과 경향.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2), 203-218.
- 장인주(2016). 문화정책 이념에 따른 프랑스 무용의 발전 양상- 문화민주화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8(1), 79-90.
- 정상천(2011).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235-262.
- 정서윤, 안병주(2014). 신(新)한류 지속발전을 위한 유튜브(Youtube) 한국 전통무용 콘텐츠 조사. **무용예술학연구**, 46(1), 91-115.
- 조홍식(2016). 한국·프랑스 관계의 역사와 전략 : 수교 130주년을 맞아. **EU연구**, 43, 133-162.
- 홍유선, 임대근(2018). 용어 한류(韓流)의 유래. **인문사회** 21, 9(6), 1231-1246.
- 박진우(2022). 2022 해외한류 실태조사: 프랑스(France) 한류 심층분석. **한류나우**, 50, 43-51.
- 장동하(2017). 개항기 주한 프랑스 공사관과 가톨릭 교회 관계. **한국사론 45 : 한불수교 120년사의 재조명**, 133-165.
- Joinau, B.(2018). Aux origines de la vague sud-coréenne : le cinéma sud-coréen comme soft power. **Pouvoirs**, 167(4), 107-120.
- Orange, M.(2017). Les premières relations franco-coréennes. **한국사론 45 : 한불수교 120년사의 재조명**, 269-297.
- Rivé-Lasan, M.-O.(2017). Les échanges entre les élites académiques françaises et coréennes : des objectifs croisés. **한국사론 45 : 한불수교 120년사의 재조명**, 345-360.
- 김은영(2025. 03. 10).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 영화 이어 무용 교류 활성화”.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31010471441656>, 2025. 05. 02>.
- 문화체육관광부(2016. 12. 12). 보도자료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 또 다른 우정의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5776, 2025. 05. 02>.
- 문화체육관광부(2025. 05. 21). 보도자료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 문화협력 기틀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34, 2025. 05. 25>.
- 박수윤(2018. 10. 19). “방탄소년단 프랑스 도착...‘유럽 문화수도’ 파리 환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9042800005>, 2025. 04. 28>.
- 한국정책방송원(1986. 06. 06). “대한뉴스 제1596호: 한불수교 100주년”. **e영상 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989&mediadtl=24091&mediagbn=DH>, 2025. 04. 20>.
- Bidet, E.(2013). “La construction du ‘soft power’ : l’exemple de la Corée du Sud”. **Ceriscope**.

<<http://ceriscope.sciences-po.fr/puissance/content/part2/la-construction-du-soft-power-l-exemple-de-la-coree-du-sud>, 2025. 02. 01>.

미래산업전략연구소(2020). 수교기념 문화행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20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분야 백서. [연구보고서].

외교부(2017).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5). 2024 한류백서. [연구보고서].

논문투고일 2025. 05. 15.

심사일 2025. 05. 21.

심사완료일 2025. 06. 03.

Development of Korea-France Cultural Exchange through Arts, Soft Power, and Hallyu

– Proposal of the Initiatives for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

Chang, In-joo

Critic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Korea-France relations, focusing on the growing significance of cultural exchange and soft power. It traces the transition from early religious contacts and conflicts to official diplomatic ties, disruptions, and renewed cooperation, culminating in dynamic contemporary relations centered on culture. The study highlights how the Korean Wave (Hallyu) – including K-pop, K-dramas, and Korean literature – has dramatically enhanced Korea’s image and influence in France, particularly among younger generations. Major diplomatic anniversaries, such as the 100th, 120th, and 130th years of bilateral relations, have served as milestones for large-scale cultural events, 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 and public engagement. Despite the success of Hallyu, challenges remain, including generational gaps, distribution barriers, and a limited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e paper proposes strategies for the upcoming 140th anniversary, advocating for balanced exchanges between popular and fine arts, expanded artist residencies, and digital innovation to strengthen sustainable cultural ties and Korea’s soft power in France.

Keywords: Korea-France relations(한불 관계), Cultural exchange(문화교류), Soft power(소프트 파워), Hallyu(한류), Bilateral diplomacy(양자 외교)